더위에도 쇼핑은 멈추지 않는다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리고 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울수록 유통업계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일 정도로 날씨와 유통업체 매출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다. 이에 유통업계가 할인 행사 및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객들 사로잡기에 나섰다.

8일 유통업계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해 8월 날씨와 매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은 35℃ 미만인 날에 비해 매출이 평균 15.7% 높았다.

특히 여름관련 상품으로 한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35℃가 이상인 날 여름 관련 상품 매출은 약 143.8% 높았다.

같은기간 대표적인 여름 상품 에어컨 매출은 357.1% 증가했으며 물놀이 용품과 선풍기는 각각 235%, 18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기온과 매출의 상관관계는 지난달에도 유효했다. 올 7월 중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기간 이마트 매출은 30도 미만인 기간 대비 5.2% 높았으며, 여름 관련 상품 매출은 15.6% 높았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여름밤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식료품 쇼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주문을 택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최근 1주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신선식품 매출은 전월 동요일 대비 10.2%, 가공식품 매출은 10.1% 증가했다.

이 기간 매출 신장률은 삼겹살이 732%로 가장 높았고 아이스크림이 518%, 봉지라면이 475%, 스낵이 356% 신장했다.

뿐만 아니라 '올빼미 쇼핑족'이 늘면서 유통업계들도 앞다퉈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밤 시간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8일까지 일부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각을 30분 연장했다. 롯데마트 역시 일부 점포의 시간을 늘려 자정에 문을 닫기로 했다.

낮 최고기온과 함께 유통업계의 매출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오는 14일까지 여름 먹거리, 선풍기, 에어컨, 의류 등 다양한 여름 관련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여름 상품 할인 대전'을 연다.

낮 기온 35도 이상일 때 매출 상승세 뚜렷
유통업계 영업시간 연장…온라인서 구매도

롯데홈쇼핑은 7월 한달간 모바일 주문금액을 분석한 결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주문액이 평월보다 20%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달 10일까지 심야시간대에 매일 새로운 상품을 최대 60% 할인해 선보이기로 했다.

신세계TV쇼핑도 8월 한달간 평일 오후 10시30분부터 오전 1시30분까지 진행되는 방송 상품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또한 이마트는 본격적이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대대적인 여름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막바지 더위를 이겨낼 선풍기 클리어런스 행사가 그 대표적인 행사다.

선풍기 2개 구매시 20%, 3개 구매시 30% 할인하는 행사로 다른 종류의 선풍기 교차 구매도 가능하다.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렉트로맨 핸디선풍기도 증정하며, 대표 상품인 일렉트로맨 베이직 써큘레이터는 1만4천800원에, 일렉트로맨 스탠드 선풍기는 5만9천800원에, 러빙홈 인테리어 메탈팬은 5만9천800원에 판매한다.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기회인 삼성, LG 브랜드 대전도 준비했다.

삼성 멀티형 에어컨은 268만9천원에, LG 멀티형 에어컨은 220만원에 판매한다.

또한 삼성/KB국민카드로 대형가전 행사 상품 구매시 최대 20만원 할인, SSG PAY로 구매시 최대 3만원 할인하는 등 다양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 먹거리 할인 행사도 선보인다.

피코크 메밀소바 4인기획(842.4g)은 20% 할인한 5천584원에, 피코크 냉면 가족세트(4인/1천348g)은 20% 할인한 5천984원에 판매한다.

여름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팔도 비빔면(5입)은 정상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2천480원에, 풀무원/CJ 평양물냉면(1천780g/1천800g, 4인) 역시 정상가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각 5천980원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여름 의류 데이즈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는 5천900원 균일가에, 데이즈 비치점퍼/팬츠는 각 7천900원-9천900원에 판매한다. 캠핑용품은 행사 카드로 결제시 최대 50% 할인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불쾌지수를 쇼핑하는 즐거움으로 잊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확 바뀐' 올 F/W시즌 스포츠 매장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대대적 개편 단행
스포츠 라이징 브랜드 신규 유치·리뉴얼 진행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올 가을·겨울(F/W)시즌 스포츠 매장(MD)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장 개편을 통해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스포츠 라이징 브랜드를 신규로 유치하고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기존 브랜드의 리뉴얼을 진행한다.

먼저 9일에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파이더' 매장을 신규로 선보인다. 거미로고로 더욱 유명한 스파이더는 스키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국내 런칭 후 종합 스포츠 브랜드로 탈바꿈해 소비자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날 '웨스트우드'와 '프로스펙스'가 팝업 매장으로 오픈한다. 웨스트우드는 인기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협찬하면서 대표적인 낚시웨어 리딩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에는 입점된 곳이 없어 피싱웨어부터 아웃도어 라인까지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 리뉴얼을 통해 기존 매장을 확대 개편해 오픈한다.

정통 스포츠보다는 패션쪽에 가까운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의 고객 수요를 감안해 매장 면적을 약 30% 확대하고 오리지널 라인을 매장에 신규 구성한다. 고객 취향에 맞는 스타일의 상품을 기존 대비 150개 이상 확대해 선보인다.

매장 개편에 따라 브랜드별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디다스와 스파이더는 당일 15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양말 등 감사품을 증정하고 웨스트우드는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스카프를 제공한다.

양남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장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스포츠 매장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최상의 쇼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2019 가을·겨울(F/W)시즌'을 앞두고 스포츠 매장(MD)을 개편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월드컵점 스포츠 매장 전경.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턴업' 출시

CJ제일제당, 40세 이후 중장년층 대상

CJ제일제당이 40세 이후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리턴업(Returnup)'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리턴업은 신체의 변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40세를 시작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40-60대를 겨냥해 각 연령대에 맞는 건강 해결책을 제시한다.

CJ제일제당은 비타민과 오메가 등 기초영양 제품과 칼슘과 마그네슘 등을 넣은 뼈 건강 케어 제품, 에너지 케어 제품 등을 내놓았다.

또 남성 전립선 건강과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제품, 눈 건강 기능식품, 대사 증진 및 다이어트 제품군 등도 리뉴얼했다.

CJ제일제당은 리턴업 브랜드 출시로 흑삼과 홍삼 제품 전문 브랜드인 한뿌리, 유산균 전문 브랜드인 BYO유산균, 뷰티 전문 브랜드인 이너비까지 모두 4개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10-20대 '피자'
40-50대 '찌개'

연령따라 냉동간편식 선호 달라

냉동 가정간편식을 고르는 취향이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냉동 가정간편식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20대의 70%는 냉동 피자나 핫도그 등 간식류를 찾았고 30대는 41.5%가 냉동 밥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그런가 하면 40-50대의 59.8%가 냉동 탕이나 찌개를 구매했다.

GS25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 10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0-20대를 겨냥한 냉동 피자, 30대 직장인을 겨냥한 냉동 낙지 볶음밥과 새우 볶음밥을 선보인다.

또 40-50대를 위해서는 냉동 해물탕, 동태탕, 알탕을 새로 내놓는다.

GS25는 냉동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